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현대사회

노동개념의 '변화'를 읽는 몇가지 시각

홍성태

(주)미디어밸리 연구원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노동자의 역설적 삶은 지금 이 시점에서 속고할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없이 부풀어 오를 것 같던 풍선이 한순간 갑작스럽게 터져버리고, 곧이어 몰아닥칠 격랑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물가는 높은 폭으로 상승하겠지만 임금은 동결되거나 삭감될 것이라고 한다. 내년 봄에 우리는 다시금 '춘궁기'를 맞게 될 모양이다. 그러나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수치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2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구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이 되는 것이다.

노동은 미덕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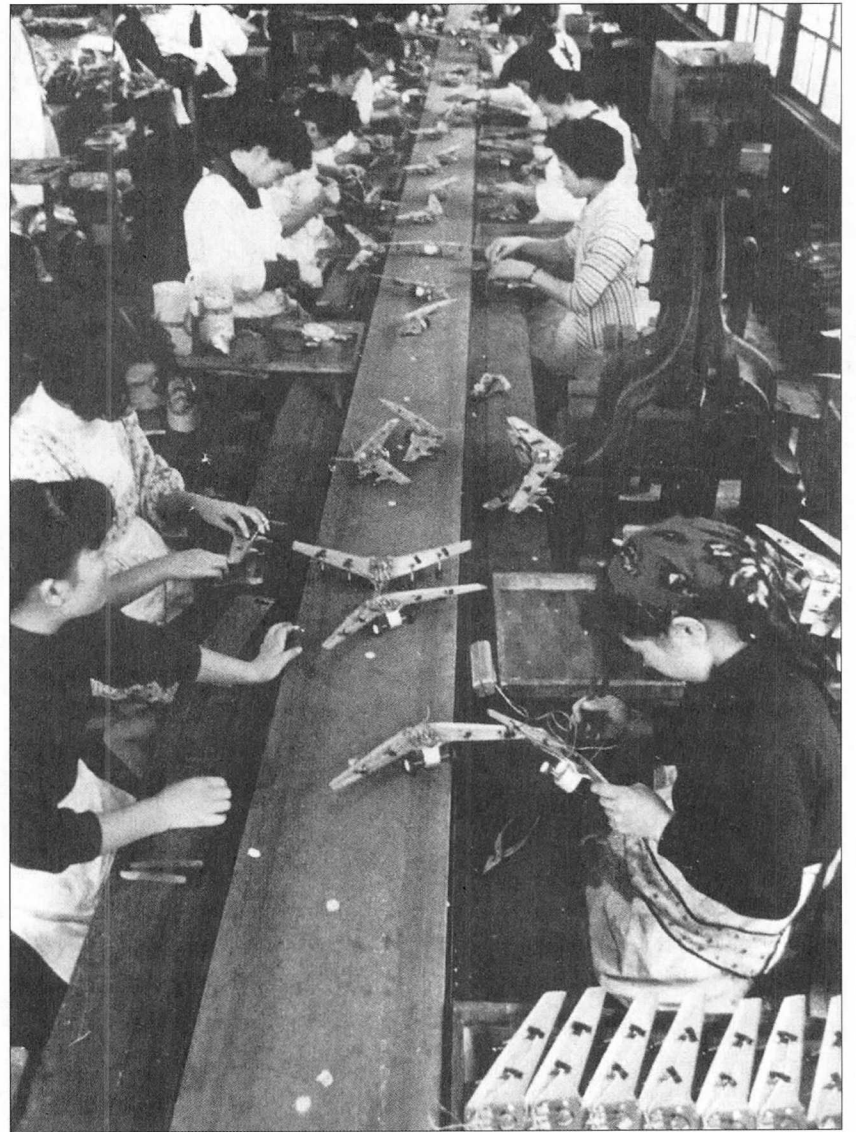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이른바 '노동의 의무'와 '근로의 미덕'은 더욱 강조된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이미 90년 전에 었튼 싱클레어는 《진전하는 삶의 길목에서》(노동)라는 소설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한 결과 건강을 해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노동자의 역설적 삶을 묘사한 바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 역설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간행된 두권의 책은 읽어 볼 만하다.

《계약을 수 있는 권리》(새물결)는 마르크스의 사위인 폴 라파르그가 1880년대에 쓴 팸플릿이다. 이 글에서 그는 우리 시대가 노동의 세기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통과 불행과 부패의 세기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노동자는 "단지 불행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할 뿐인 '일할 권리'가 아니라 누구든 하루 세 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철의 법칙을 주도하기 위해 봉기해야 하는 것이다."

《게임에 대한 찬양》(사회평론)은 저명한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의 에세이 모음으로, 그는 같은 제목의 글에서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현대 사회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생산방식은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쪽 사람들에겐 과로를, 다른 편 사람들에게엔 굶주림을 주는 방식을 선택해 왔다."

이 두편의 글은 모두 근대 산업사회의 근



간인 노동의 원리를 여가의 원리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 여가의 향수야말로 진정한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며, 노동은 여가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노동과 근면을 탄핵하는 반면에 여가와 게임을 칭송하는 이 두편의 글에서 우리는 일종의 전복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자본주의의 엄혹한 경쟁체제가 강요하는 가치의 정당성을 뿌리부터 뒤집어놓는다.

산 노동을 위한 죽은 노동의 봉사

게임의 인간적 가치를 복원시킬 수 있는 기반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라파르그와 러셀은 비슷한 답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기계의 이용이다. 죽은 노동으로 하여금 산 노동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러셀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기계가 없던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어리석었다." 라파르그는 더욱 강한 어조로 말한다. '기계는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며, '천박한 일과 돈 때문에 하는 노역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여가와 자유를 마련해 줄 신'이라고.

확실히 기계화에 기반한 생산력의 증대는 노동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누구나 충분한 여가를 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자본주의라는 사회역사적 맥락을 벗어난다면 칸트가 말하는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할 뿐이다. 자본주의는 기술혁신의 강박에 사로잡힌 사회체제이지만, 그 근원적인 동력은 최대이익의 추구이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기술의 지배가 갈수록
명백한 지금 '노동의 종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노동자 없는 경제로 향한
길목에서, 기술력의 자본주의적
전취가 노동의 존재를
근간에서부터 동요시키는
지금이야말로 생산력의
사회화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하에서 추구되는 생산성의 향상은 노동시간
의 단축과 여가의 향수로 직접 연결되지 않
는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은 그의 《위
협사회》(새물결)에서 철저한 임노동사회인
"산업사회가 임노동의 체계적 변혁에 직면해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변혁에 직면해 있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표준화된 완전고용체
계에서 유연하고 다원화된 저고용체계로"의
변화라고 주장한다. 이리하여 현대사회는 생
산력의 고도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
하는 '위협사회'가 되는 것이다.

많은 미래론자들은 기술이 가져올 궁극적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모든 노동
자들이 일종의 지식인이 되고 삶의 모든 면
에서 편리성이 극대화되리라는 예측에서 보
이듯이. 그러나 현실에서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회사가면 죽는다》(현실문화연
구)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기술혁신의 사
회화 과정이 노동자들에게 가져온 과다한
스트레스의 억압적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이 책에서 제시된 현실은 직접적인 당사자
들이 경험한 1990년대 초반의 한국사회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자본주의의 기술혁신이 노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미래론자들과는 달리 대단히 비
판적인 관점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권의 책이 최근에 간행되었다. 어떤
면에서 이 두권의 책은 묵시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노동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라는 전대미문의 가능성을 제기하
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사라지는가

비비안느 포레스테의 《경제적 공포》(동문
선)는 '효율에만 집착하여 도입되는 신기술
이 미치는 광범위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검
토한 결론으로 '노동의 소멸'을 통해 노동자
가 잉여존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명한 도시사회학자인 마뉴엘 카스텔이 말
하는 서구 대도시의 하층계급(Under Class)
과도 상통하는 이러한 잉여존재는 디스토피
아적인 SF물에서 우리가 흔히 대면하는 존
재들이기도 하다.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민음사)은
"우리는 지금 세계시장과 생산자동화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거의 노동자
없는 경제로 향한 길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
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문명 자
체의 종말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파국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는
제3부문으로 불리는 자원활동(volunt-
eer)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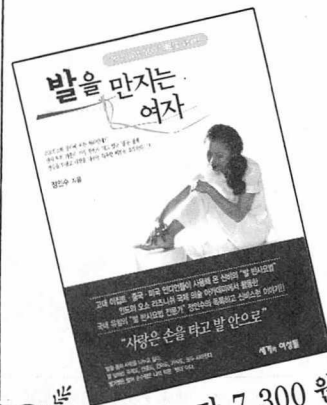
사이버네틱스라는 통합학문을 창안하여
현재의 자동화 내지 컴퓨터화의 이론적 가
능성을 제시한 노버트 위너는 그의 《인간활
용》(전파과학사)에서 "자동기계는 노예노동
과 경제적으로 동등하다. ...이것이 실업상태
를 초래할 것은 아주 명백하며, 이것에 비하
면 1930년대의 경제공황까지도 유쾌한 장난
으로 보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레스테도 지적하듯이 거의 누구
도 위너의 이러한 우려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기술의 지배가 갈수록 명백해지는
지금이야말로 위너의 우려에 관심을 기울여
야 할 때이다. 그리고 기술력의 자본주의적
전취가 노동의 존재를 근간에서부터 동요시
키는 지금이야말로 리프킨의 제안과 같은
생산력의 사회화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

'98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건강'입니다.
추운 겨울 가족끼리,
손자가 할머니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발'을 만져주며,
사랑과 화목을 도모하고
더불어 건강도 지키시길
기원합니다.

한집에 한 권씩 꼭 비치하면 좋을 '가정 상비 책'
정인수의 『발을 만지는 여자』는 서점에서 인기리에
판매중입니다. (30여 매스컴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서 유익한 책으로 선정 기사화 됐습니다.)



교보문고, 을지서적
베스트셀러 진입!
SBS 신바람스튜디오
저자 출연!

값 7.300 원

세계의 여성들

• 전화: (02)2650-124 • 팩스: 278-6243